



카카오페이슨보 '직거래전월세보험'.



메트라이프생명 '소방관 전용 미니보험'.



삼성화재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전세사기·고위험 직군·항공지연 보험사, '틈새 보장' 신상품 공세

카카오페이슨해보험

직거래 전월세 보증금 전액 보상

메트라이프생명

소방관 미니보험 합리적 설계

삼성화재

국내외 항공지연 특약 전면 확대

보험사들이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인 직거래 구간, 소방관 등 고위험 직군, 해외 항공지연 처럼 기존 보장망이 미흡했던 빈틈을 겨냥한 신상품·특약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은 지난달 공인중개사 없이 체결하는 전·월세 직거래 계약을 겨냥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모바일 기반 상품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당근' '피터팬'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계약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존 보증이 취약했던 입주 전 구간까지 가입·보장을 열어 대항력(확정일자·전입·점유) 확보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피해 리스크를 댄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 주택 이중

계약 ▲전입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생기는 선순위 권리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한다. 보장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보장금액 1000만~5억원 구간에서 설계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슨해보험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 상품"이라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고위험 현장 직군인 소방관 전용 미니보험을 출시했다. 기본 담보는 ▲재해 사망 ▲재해 장애 ▲중증 화상·부식 ▲재해 골절 ▲재해 수술 등 5종이다. 재해 장애는 지급률 3~100%까지 폭넓게 설계했다.

현장 직군의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소방공무원 신분 증명 사진만 제출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 사고 시 즉시 지급을 표방한다. 가입 대상 20~60세 소방공무원, 만기 1년,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 5150원, 여성 3400원이다. 재해 사망 500만원, 재해 장애·중증 화상 각 250만원, 골절·수술 각 5만원을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소방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위험을 종합

적으로 보장하면서도 1만원 미만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삼성화재는 해외 출발·입국편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실손형 보장을 제공하는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을 선보였다. 해외 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편과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지연·결항으로 발생한 비용을 최대 50만원 실손 보상한다. 대상 비용은 식음료·숙박·편의시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1월 도입한 국내 출국 지연 '정액형'(최대 10만원)과 결합해 국내·해외 모든 공항의 '2시간 지연'을 커버하는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사각 해소'의 상징성이 크다. 고객은 국내 출국 지연은 간편 정액 보상으로, 해외 지연은 실손 보상으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항공지연 관련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국내출발 항공지연은 정액형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외출발 항공지연은 숙박 등 큰비용이 발생해도 실손형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보험·투자 등 전 과정 중대재해 관리 강화 나선다

금융권 '노동안전 대책' 후속조치
사고이력 신용평가·보험료 차등
기관투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여신 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추진 목표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됐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대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발생기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를 할증을 적용하는 한편,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산은·기은·신보를 통해 안전설비 신규투자기업과 안전 우수 인증기업에 우대 상품을 공급하며, 주택금융공사도 PF상품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공급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황·대응 조치 등을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후속 조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카타르 1.4조 태양광발전 수주

韓 건설사 시공 역대 최대 용량
전 과정 단독 수행… 2030년 준공

삼성물산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나찰통지서를 수령하고, 발주처인 카타르 에너지와 서명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금액만 약 1조 4600억원 규모이다.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과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카타르 에너지 최고경영자(CEO)인 사드 알카비(Saad Al-Kaabi) 등 양사의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두칸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발전 용량만 2000MW인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카타르 에너지 최고경영자(CEO) 사드 알카비가 카타르 두칸 태양광 발전 서명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으로, 한국 건설 기업이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만 27k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9배에 달하는데 사용되는 패널만 274만장에 이른다. 2030년 준공시 세계 최고 수준인 카타르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고려해도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저축은행, 대출 규제에 예금금리 인하 '러시'

지난달 3.0%서 2.92%까지 하락
높은 금리로 수신 확보 유인 사라져

정부 대출 규제로 여신 잔액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정기에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에금의 평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3.0%였던 정기에금금리는 같은달 13일 기준 2.99%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이틀 간격으로 0.01%포인트(p)씩 하락하더니 최근 2.92%까지 내려왔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로 대출을 늘릴 수 없는 현 상황이 예금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이 자로 수익을 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수신을 확보할 유인이 사라진 것.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이자를 두고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것"이라면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영역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이 이로 인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제2금융권은 대출을 늘릴 수도,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3.0%를 유지하면서 수신고를 미리 확보해 놓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예상과 유동성 관리 등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은행

들이 수신 전략을 짤다"면서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3%로 유지하면서 수신을 확보해, 예금금리를 낮춰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신금리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일종의 비용"이라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예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댈길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신 규모는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기에금 잔액은 958조 840억으로 지난달 말 954조 7319억원에서 3조 3521억원 증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제2금융권에 자금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금자보호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금쏠림 현상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